

한남대 재학생, '2020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우수상

대학경제 | 권현수 기자

2020.11.03 12: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0312047447804&type=1>

기사주소 복사



한남대학교는 최근 교내 재학생들이 '2020 데이터 청년 캠퍼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한 이륜차 운행환경 조성을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한남대 '분석나라코딩공주' 팀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데이터청년캠퍼스 우수 프로젝트 발표 및 시상식'에서 전국 80여개 팀(12개학교)과 실력을 겨뤄 우수상을 차지했다.

학생들은 최근 급증하는 이륜차 및 퍼스널모빌리티 사고 예방을 위해 '연관 분석과 이미지 딥러닝을 이용한 안전모 착용 활성화 서비스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이 배달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는 결국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및 높은 사망률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륜차 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이륜차사고와 부상정도, 안전모 착용여부와 부상정도를 파악하고자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및 연관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학생들은 대전시에 이륜차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Hot Spot)을 사고피해정도지수(EPDO)를 활용해 지도상에 맵핑(Mapping)을 시도했다. 더 나아가 Hot Spot지역의 영상을 직접 수집했고, 이미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여부를 단속하는 시스템을 개발, 제안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향후 학생들이 제안한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이륜차 제조업체, 배달대행업체, 경찰청 단속에 활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안전한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김재민(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졸업), 김민종(경영학과,4학년),정은비(멀티미디어공학전공,4학년), 심병창(비즈니스통계학과,4학년), 윤여준(경제학과,4학년), 이원경(비즈니스통계학과,4학년) 총 6명이다.

한남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김명준 교수는 "우리 학과는 지난 4월 '2020년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사업에 선정된 이후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분석 및 응용' 교육과정을 6개월 동안 운영했고 35명의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며 "빅데이터가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만큼 학생들의 이번 성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